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오늘은 종려주일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우리의 왕

4월 1일(월) 저녁부터 5일(금)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
5일(금) 전교인 금식 기도일, 저녁 8시부터 고난주간 음악예배
한국 초연 '마가에 의한 그리스도 수난곡' 을 실로암찬양대가

오늘은 종려주일,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종려주일은 요한복음 12장 12-15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며 "호산나!"를 외치던 데서 유래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종려주일은 애도의 날이 아니라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철저히 축제의 날로 지켜졌다고 한다.

그러나 군중의 마음, 아니 너와 나를 포함한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하고 변덕스러운가. 이날,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겹옷을 벗어 길에 퍼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찬송하며 환호하고 열광하던 무리들은 몇 날이 못되어 돌변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소서!" 저주하며 소리치는 악마의 줄게들로 변해 버렸다. 그래서 종려주간은 가장 극심한 그리스도의 고난주간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오늘 종려주일을 보내며 '호산나'를 외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쉼 주시는 면류관을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의 쓴 잔을 마실 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일 부활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에서 은혜를 받아 우리 자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야 할 것이다.



강사 김덕신 목사

- 대구노회 중경노회장
- 전 대구신학교 교수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중경총회장(합동)
- 현재 동부교회 담임목사

어느날 원로목사의 설교 말씀처럼, 군인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일꾼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찬양으로 시작하는 11회의 말씀 잔치를 통해 힘, 힘을 충전시키자.

또한 예수께서 당하신 수난의 극치인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에는 실로암찬양대의 연주로 고난주간 음악예배가 진행된다. 이번에 실로암찬양대에 의해서 연주될 곡은 한국 초연의 '마가에 의한 그리스도 수난곡(LA PASSIONE DI CRISTO SECONDO S. MARCO)'이다. 음

악예배가 진행되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교회가 전교인 금식 기도일로 지킨다. 따라서 실로암찬양대는 하루종일 금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된다.

모든 성도들은 금요일 새벽까지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통해 성령충만함을 받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리에도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기 뒤편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실로암찬양대와 함께 찬양하며 저 겹세마네 동산, 골고다 언덕까지 기쁨으로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한다. 기도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외쳐 보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실로암찬양대
고난주간 음악예배

한국 초연 <마가에 의한 그리스도 수난곡>

LA PASSIONE DI CRISTO SECONDO S. MARCO

D. Lorenzo Perosi

실로암찬양대(대장 이훈 장로, 지휘 김철륜 집사, 반주 임효선 선생)는 금년 부활절 행사로 고난주간 음악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성금요일인 4월 5일(금) 오후 8시에 개최될 음악예배에서 실로암찬양대는

하루종일 금식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된다. 독창자들은 임석현, 강동일, 김훈, 이규원이 예수와 해설을 맡게 되었는데, 실로암찬양대의 합창과 함께 제1부는 최후의 만찬(La Cena del Signore), 제2부는 산상기도(L'orazione Al Monte), 제3부는 구세주의 죽음(La Morte del Redentore)이 연주된다.

수난곡은 언제나 그 마지막이 예수의 죽음으로 끝난다. 수난곡은 중세 초기에 예수의 수난과 죽음을 노래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 역사가 꽤 오래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종교개혁 이후 루터파에서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본다. 12세기에는 예수의 고난

과 죽음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 극적인 형식을 띠고 낭독하는 관습이 교회 내에 있었는데 대개는 3인으로써 1인은 해설자, 또 1인은 예수의 말씀 낭독, 그리고 나머지 1인은 군중을 대표하는 투르바(Turba)였다.

실로암찬양대가 연주하는 '마가에 의한 그리스도 수난곡'에도 해설자, 예수의 말씀, 군중들이 나온다. 모조록 이번 고난주간 음악예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통당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고난주간 음악예배를 통하여 함께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심판의 날을 예비하기 원한다.

한국에서 초연되는 곡이므로 실로암찬양대는 특별한 사명감으로 열심히 연주토록 할 예정이다. 고난주간 음악예배를 별로 드리지 않는 한국적 상황에서, 특히 새로운 곡을 소개한다는 자부심과 한국교회 음악의 건인차적 역할에 크나큰 사명 의식을 느낀다. 연주시간은 약 45분이다.



새가족환영회

오늘 4부예배 후 교구별로

오늘 우리교회에서는 각 교구별로 지난 1월 21일부터 3월 17일 사이에 등록한 새가족을 대상으로 새가족환영회를 개최한다. 각 교구에서는 새가족을 인도한 성도들이 새가족들과 함께 꼭 참석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제2차 세례식 안내

4월 12일(금) 저녁, 갈릴리홀에서

96년도 제2차 세례식이 오는 4월 12일(금) 저녁 7시에 갈릴리홀에서 거행되며, 이를 위한 예비교육과 문답이 11일(목) 저녁 7시에 교육관 307호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학습, 세례, 유아세례, 입교, 개종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4월 7일(주일)까지 교구 담당 교역자에게 신청하면 된다.

24시간 연속기도회

3월 27일(수) 정오부터 4월 1일(월) 정오까지 제8교구.

4월 1일(월) 정오부터 4월 6일(토) 정오까지 제9교구.

4월 6일(토) 정오부터 4월 11일(목) 정오까지 제10교구가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시 19:1-14)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이른 아침에 동쪽 하늘에 불끈 솟아 오르는 붉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영혼이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고, 밤에는 한없이 많은 별들이 움직이는 대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 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눈이 열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소리 없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의 귀가 열렸습니다.

1. 자연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
 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
 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
 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19:1-4 상)
 라고 했습니다. 푸른 하늘, 몽게몽게 피
 어나는 환구름, 하늘의 달과 수없이 많은
 별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고, 해와 달과 별을 보고, 하나님의 영
 광을 나타내 주는 그 모든 것을 활동사
 진처럼 보니 아무 소리도 안나는데 하나
 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날은 날에게 지
 식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매일매일 스물 네 시간 변함없이 매일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낮이 오고 꼭 순서대로 오고 갑니다. 찾는 음성도 없고 간다는 인사도 없고 약속도 없는데, 그 시간 되면 오고 그 시간 되면 갑니다. 자동차도 굴러가는 소리가 나고, 조그만 시계도 짹 짹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큰 지구 덩어리가 소리없이 움직입니다. 저 하늘의 억만 개, 수십 억만 개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움직이는데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애가 키 크는 소리, 나무가 자라는 소리, 인조기계는 소리 없이 움직이지 못하나 생물은 소리없이 큼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소리 없이 들려오고 소리 없이 시행됩니다. 그런데,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는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트인 사람은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태양이 가고 별이 뜨고 해가 떨어지는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 소리없는 음성을 나는 들었다.'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모릅니다.

과연 다윗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하늘의 태양, 달과 별, 지구의 조수,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소리없이 다 질서있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봅니다. 영의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영의 귀를 열어 보니 하

나님의 음성이 소리 없는 중에 웅변처럼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어 보니 우주 만물은 교과서요, 양심만 깨끗 하면 전부가 그의 스승입니다. 우리 성도 들도 욕심에 눈이 가리운 소경 되지 말고, 교만의 언덕을 쌓아 앞을 내다 보지 못하여 욕심의 웅덩이에 빠지지 말고, 지 높은 곳을 향하여 눈이 열리고 만물을 볼 때에 진리를 보고 소리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웅변처럼 들어야 합니다.

2.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어떠합니까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원 불변, 일점일획이라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특수게시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육백 년 동안 걸려 쓴 책이 어디 있으며 가지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십여명의 사람이 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는데 그 책의 뜻이 털끝만치도 틀림이 없으며 한 줄로 꺾어나간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책입니다.

(1)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여호와와 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
성케 하고”(19:7 상)라고 했습니다. 땅위
에는 많은 책이 있어서 지식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 책을 통해 감동도
얻고 실력도 얻습니다. 그러나 땅위의 많
은 책 가운데 생명을 주는 책은 없습니
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줍니
다. 죄로 병들었던 영혼의 병을 고쳐서
죄와 악마의 노예 자리에서 해방되는 기
쁨을 주시고, 그의 마음 속 불안과 실망
을 평안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모
든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죄를 깨단
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으니 이 말씀을 통해 영혼이
소성되고 생명이 옵니다.

(2) 지혜를 줍니다

“여호와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19:7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떻게 살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을 다 알게 하시며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으로 영육간에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책입니다.

(3) 기쁨을 주십니다

“여호와와의 교훈은 정직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19:8 상)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성경은 잘한 것, 못한 것 하나도 안 빼고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통령 기록했습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당장에는 재미없는 것 같아도 언제나 기쁨을 주고, 사람의 거짓말이 임시로 달콤한 것 같아도 두고두고 쓴 고통을 줍니다. 하나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영원불변, 일점일획이라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천육백 년 동안 걸쳐 쓴 책이 어디 있으며 가지각색의 직업을 가진 사십여명의 사람이 쓴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는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는데 그 책의 뜻이 털끝만치도 틀림이 없으며 한 줄로 뺄어나간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책입니다.



을 줄 아는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3. 다윗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1) 숨은 허물에 포로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
 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
 서”(19:12)라고 했습니다. 숨은 허물이라
 는 말은 모르는 사이에 죄를 범한 것, 그
 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된 것을 말합니다. ‘**모르고** 범한
 죄가 습관이 되면 안되겠사오니 요것 없
 애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2)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19:13)라고 했습니다. 꼭 같은 죄를 범해도 세 가지로 해석하는데 모르고 범한 죄는 허물이고, 알고도 약하여 범한 죄는 보통 죄고, 알고도 계획적으로 범한 자는 죄악입니다. 고범죄는 죄악입니다. 알고 죄를 범하고 계획적으로 범해 놓고는 거짓말 뒤에 숨겨 놓고 우물쭈물할 동안에 그것이 나를 완전히 노예로 만듭니다. 고범죄를 한 번, 두 번 범하고 숨겨두는 자는 완전히 죄악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 고범죄를 두 번, 세 번 범하다가 죄악의 완전한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자유하는 양심적으로 사는 영혼을 만들어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3) 찬송과 전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19:14)라고 했습니다. ‘내 입의 말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제물이 되고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숨은 허물이 없는 깨끗한 생활, 고범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정직한 생활을 살면 그 입의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입의 전도가 생명을 건지는 구원의 씨앗이 되고, 그 입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 축복이 됩니다.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열어 주시는 계시를 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수계시를 보고 숨은 허물이 없어지고 고범죄가 없어지면, 그 사람의 생활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시편 19편이 여러분의 영원한 재산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님의 말씀이 인간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 영원토록 변치 않는 정직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놓고 믿을 수 있으니 저기에서 기쁨이 옵니다.

(4) 눈을 밝게 합니다

“여호와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19:9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섞인 것이 없이 깨끗해서 영의 눈을 밝게 하고, 양심의 눈을 밝게 하고 이치에 대한 눈을 밝게 하고 인간 지식의 눈을 밝게 합니다. 눈이 밝다는 것은 참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속에 받아들이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들여다봅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은 이깁니다. 남이 못 보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며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영의 눈이 열리고, 악마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수단을 보는 눈이 열리고, 인간이 무엇인지 아는 눈이 열리고, 만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는 눈이 열리고, 자기의 책임을 감당하는 방법을 아는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남이 못 보는 것을 보는 현미경이고, 남이 못보는 것을 보는 망원경입니다.

(5) 영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
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와 규례는 확실하
여 다 의로우니”(19:9)라고 했습니다. 하
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
상의 모든 것은 잡것이 다 섞여 있어 썩
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까지 썩을 수
가 없는 정결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와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 말
씀을 배우고 지키는 사람은 죄를 끊고 깨끗
하게 살 수가 있고 죄를 이길 힘이 생
깁니다. 이미 죄를 범했던 사람도 회개하
고 용서받으면 다음에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공
평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금 곧 많은 정
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
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더 달아 먹으면 먹을수록 썩는 법이 없
고 금보다 귀하여 가지면 가질수록 도적
이 못 읍니다. 말씀을 읽으면 암만 봐도
모르겠는데 영혼이 큼니다. 마음에 기쁨
이 생깁니다. 금보다 더 귀하고 꿀보다
더 달입니다. 그저 말씀을 먹고 사랑하면
영혼이 살고 영육이 저해롭고 언제나 기
쁘고 악마를 이기는 실력자가 됩니다. 육
신의 밥 먹기 전에 성경 한 줄이라도 읽



고난주간 이렇게 보냅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 종 대

(목사, 교육위원회 · 소망부 · 제2교구 지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 아니라 자신을 따르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눅 9:23).

특히 현재 우리교회의 아픔과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부활절에 가려져 자칫 간과하기 쉬운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우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을 행사로만 생각하여 그때에만 특별한 자세를 갖고, 지나면 잊어버리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일년 내내 아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고난과 부활을 생각하며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에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합당하게 생활하지 않는다면 평소에는 더욱 합당치 못한 생활을 할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생활이 이번 고난주간을 계기로 더욱 견고하게 자리잡아 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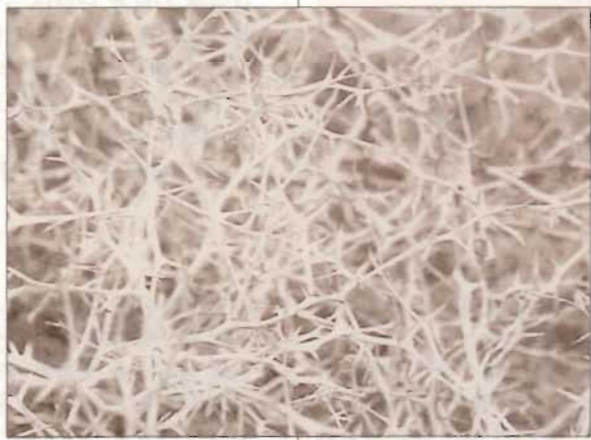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눅 9:23)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또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 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 하셨습니다(빌 2:5-8). ‘복종’,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 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 있고, 마귀는 아직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분이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실 리가 없으셨지만 신성뿐 아니라 인성을 가지신 분이므로, 또 우리들에게 교훈과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로 가시기 전에 ‘겔세마네’로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겔세마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마 26: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참으로 ‘고민하여 죽게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이렇게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하는 성도가 있다면, 예수님보다 강한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며, 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노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는 자는 위선자일 수 있습니다.

두 제자와 베드로는 겔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사랑으로 권면,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시고 와서 보시니 세 제자들은

자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세번째 동일하게 기도하신 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잡히셨습니다. 즉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러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날마다 겔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같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자기를 부인하지도, 제 십자가를 지지도,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는 않더라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도시간에 졸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서 혈기를 부렸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쓸데 없는 일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성도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길을 저지하려고 혈기를 부릴 것입니다. 잠시 후에 베드로는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도 시간에 졸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길을 막고서 부질없는 혈기를 부리고, 급기야는 주님을 부인하는 뼈아픈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겔세마네의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위한 기도’, ‘십자가를 지려는 기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이것은 고난주간을 지내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침체된 영혼이 소생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부흥사경회는 중요합니다. 표어가 ‘일어나라 함께 가자’입니다. 겔세마네의 기도가 끝난 후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제 찬송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519장)입니다. 장소가 좁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당에서 합니다. 새벽, 낮, 저녁 모든 시간은 강사 목사님이 계속합니다. 저녁식사와 아침식사도 직장을 위해 제공합니다. 숙소도 마련하였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로 성도를 변화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무도무능(無道無能), 소도소능(少道少能), 다도다능(多道多能)’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말씀을 설교하는 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참석 여부는 각자의 기회로 남아 있습니다. 능력을 받아야 십자가를 질 수 있으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 양보의 능력, 자원의 능력, 모든 탐심을 제어하는 능력, 인내하는 능력, 온유한 능력, 하나되는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렘 1:11).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됩니다(창 44장 3절).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탐심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겔세마네’와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특별부흥사경회에 참석하고 ‘순종을 위한 기도’를 하여, 고난주간을 잘 지내고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신 학교에 다닐 때 선배 목사님께 목회 일화를 들으면서 많이 웃은 적이 있다. 오래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잣 예수를 믿는 할머니를 심방하시는데 예배가 끝난 뒤 할머니께서 귀한 것을 대접하시겠다며 부엌에 나가시더니 파프리카 대운 맥주를 대접에 부어 들어오시더라는 것이다. 그러시면서 “목회 일선에 나가봐 ‘목회는 먹회’야!” 하셨다.

길지 않은 목회 생활에서 그 말씀이 얼마나 필요한 말씀인지 조금씩 실감하며 깨달아 간다. 몇 년 전 어느 구역 대심방을 하던 중이었다. 내가 폭 달인 대추인삼차를 좋아하는 것을 한 자매님이 아시고 간식으로 그걸 준비하셨다. 때문에 들어서자 맛있는 차 향기가 온 집에 가득 차 있어서 참 맛있는 냄새가 난다고 칭찬

하자 그분이 대심방을 위해 이를 동안 그차를 다려 놓았다고 자랑하신다. 그 가정의 형편을 살피고 예배를 마친 후 예쁜

들어 있는 찻잔 밑에 대추 껍데기 같은 것이 가라앉아 있었다. 마시려고 잔을 들고 찬찬히 들여다 보는데 그것은 다리가

징검다리



목회는 과연 먹회인가?

정 광 옥

(목사, 장년1부 · 제10교구 지도)

잔에 뚜껑을 덮은 차가 과일과 함께 들어왔다. 기도를 마치고 차를 마시려고 뚜껑을 열었는데 갈색의 약간 탁한 차가 가득

달린 이상한(?) 대추 껍데기가 아니었다. 찻잔 밑에는 결코 작지 않은 바퀴가 발랑 누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갑자기 고민이

생겼다. 이걸 마실 건가 말 건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자니 이를 동안 대심방을 기다리며 차를 달인 자매의 당황하는 모습과 앞으로 목사를 볼 때마다 미안해 할 얼굴이 생각나고, 마시자니 대추-인삼-바퀴 탕이다. 속으론 진땀이 나지만 태연히 가능한 한 빨리 그 탕을 마셨다. 그리고 잔을 내 자리에 그냥 두면 자매님이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놀랄 것을 생각해서 아주 이해적으로 직접 잔들을 거두어 몇 개를 포개어 쟁반에 담았다. 구역장은 속도 모르고 목사님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난 속으로 ‘그래요, 하나님! 목사에게는 바퀴탕이 보신이 된답니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로 폭 고은 차를 마실 때는 가능한 한 자세히 보지 않고 마시는 습관이 생긴 듯하다.

토막소식

◆ 초등3부는 오늘 1~3월 공과를 범위로 학습평가를 실시한다.

◆ 초등5부는 오늘 예배 후 교육관 403호에서 금년에 새로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는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한다.

◆ 새가정부는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교육관 201, 202호에서 이승림 목사(영어예배부 지도)를 모시고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벧전 3:1-7)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한다.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에신부는 오늘 제1회 반별 찬송가 부르기대회를 개최한다. 지정곡은 '완전한 사랑' (288장)이다. 또한 지난 2월과 3월 동안 교육을 받아오던 96년도 제2기 예비 신랑 신부 8쌍이 수료하며, 현재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 이번주에는 성경연구원에서 주관하는 모든 주간성경공부가 고난주간특

충현동산 관리비 수납

평상시 사무국에서 수납하던 충현동산 관리비를 4월 5일(한식)에는 충현동산에서 직접 수납합니다. 충현동산 관리비는 1년에 30,000원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협조바랍니다.

별부흥사경회로 대체된다. 열심으로 성경공부에 참여했던 마음으로 이번 특별부흥사경회에 참석하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

◆ 장년2부는 오늘 장년2부 집회시간(오후 12시 30분)에 장년2부실(교육관 314호)에서 특강 시간을 갖는다.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 지킴'이며 강사는 이화여대 예방의학 교실의 강지용 교수이다.

예비신랑신부교육부 제4기 수강생 모집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아래와 같이 96년도 제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1. 수강 대상자

- ① 본 교회 교인으로서 결혼을 준비중인 남녀
- ② 타 교회에 출석중인 자로서 본 교회에서 결혼예식을 하고자하는 남녀

2. 교육기간

4월 7일(주일) ~ 5월 26일(주일)

3. 교육내용

성경적 결혼과 가정관에 대한 강의 및 신앙지도

사랑부에서 달려가겠습니다

김준권

(집사, 사랑부 부장)

주일학교 사랑부(정신지체자)는 1988년 9월 10일에 개교되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8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건과 사연들 속에서도 우리 사랑부 학생들은 각자의 특성대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충현의 성도 여러분!

아직도 사랑부가 어떤 부서인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는 분 계신가요? 사랑부 학생들을 의식적으로 멀리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장애'란 정상과 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아니라 정상과 같은 연속선상에서 보되 기능적인 차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울바르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다만 불편함을 겪는 나의 자녀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신체적 정신적 특징도 저마다 다르다는 의미는 인간의 평등함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도 장애인들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셨으며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그들의 인격적 권리와 함께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 동참케 하시는 영적인 권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계 주신 계명은 선교(전도)의 대명령이었습니다. 차별없이 땅끝까지 행해져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선교하라 하셨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선교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님 가정에 또는 이웃에 장애자가 있으십니까?

장애자가 있으시면 사랑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일 552-8200 사랑부, 평일 423-3875). 주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섬기겠습니다. 사랑부 주일에 배는 교육관 107호에서 11시에 드리고, 12시 30분에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선입견도 버려주세요.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우리(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고전 1:27-28).

이들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하시며 냉랭한 마음에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수단 카르툼 상황

유엔에서 이집트 대통령 무바라크의 저격사건(이디오피아)에 관해 수단 모슬렘 테러분자 2명을 인계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수단정부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교일 중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대사관이 지난 2월 중 완전 철수해서 케냐 나이로비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외국 공관들도 사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서방 국가들과는 등을 돌리고 있으며, 주변 국가인 이집트, 이디오피아, 우간다 등과 아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수단 주재 선교사들은 현재 13명(목회자 2가정, 평신도 2가정, 독신 5인)이며 자녀는 8명입니다.

2. 수단 선교 활동

머자립교회 방문(Sudan Presbyterian Evangelical Church)

① 움발다교회: 영국에서 한 2년간 공부한 아담 목사님이 흑담집교회에 100여명의 남부 흑인들을 모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녁 5시에 시작하고 지난번 수단한인교회에서 선물한 램프를 밝히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1907년경 평양에서 있었던 사경회와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부흥을 가져왔던 기도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이 램프의 불과 같다면 계속 타오르게 하는 압축 공기의 공급은 기도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움두르만교회: 싸이만 목사님이 인도하는 N부족의 집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분들이 제일 적극적이고 카르툼에서 제일 큰 그룹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 다툼을 잘한다고 들었습니다. 약 300명이 예배드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징에 대한 말씀 즉 서로 파당을 나누는 자들에 대한 경계(대신에 사랑과 격려)와 일을 하지 않고

한담하는 자들의 경계(대신에 부지런한 성공)를 나누었습니다.

③ 코바르감옥교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토마스 사무엘 두 형제들과 함께 3번의 초소를 거쳐 남자형무소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들의 수용소인데 깊숙히 예배처소가 아담하게 마련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 정면에 걸려있고 70여명의 수감자들이 모

다. N부족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발생하여 한 명이 죽었는데 이 일로 인해 목사님을 포함한 4명이 의심을 받고 2년간 수감중인데 그 중의 한 명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형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언제인지는 분명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님!) 여러 형제들이 두 전도사에게 찾아와 편지도 주고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많은 부탁

두 모슬렘 형제들을 개종시켜 세례를 의뢰해서 현지인 나지코나기 목사님(장로교단장:충현김세미나 참석)에게 의뢰해서 나일강에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아 출신인 형제가 주님께 헌신되어 실수도 해가며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처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 선교지에서 온 소식 / 수단 김영대 선교사 ◆

선교지 구석구석까지 깊이 관여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깊이 관여하고 계시구나 하는 놀라움과 더불어 하나님께 겸손히 머리숙었습니다. 이곳에서 간단히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양의 문(예수님)으로 들어오면 당신들은 쉼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오면 이곳에서는 과거를 잊고 평안함과 사랑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이름 없이 말씀을 전하는 형제가 새삼 새로워 보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카톨릭 신부님이 예배를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곳에는 이태리 대사관과는 별도로 로마교황청 대사관이 한국 대사관처럼 따로 나와 있습니다.

마당에 나와서는 한 형제가 다가와서 예전에 마요교회(머자립난민교회)에서 뵈던 적이 있다면서 자기 이름을 J라고 하면서 다음에 아랍어성경을 원했습니다. 문을 막 나오려 하는데 한 분이 성경을 옆에 끼고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분은 자기를 하조셉교회의 목사라고 했습니

다. N부족인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싸움이 발생하여 한 명이 죽었는데 이 일로 인해 목사님을 포함한 4명이 의심을 받고 2년간 수감중인데 그 중의 한 명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형기가 거의 끝나 가는데 언제인지는 분명히 모르겠다고 합니다. (주님!) 여러 형제들이 두 전도사에게 찾아와 편지도 주고 여러 가지 도와달라고 많은 부탁

을 하였습니다. 교도관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코바르감옥을 뒤로 하였습니다.

센터교회를 위한 지방도시 방문(바울 사도 선교 전략 근거로)

① 알 오베이드교회: 그곳에 계시는 릴리안 목사님을 뵈었습니다. 1박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정을 듣고 교회 경내를 보았습니다.

② 코스티교회: 수단 목사님이 설립한 이 교회는 바로 콥트교회 옆에 위치했는데 너무 대조가 되었습니다. 교회부지와 건물을 둘러보면서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부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3. 카르툼의 메도(2월)

① 단기선교사 이영수 형제(어린이 교육선교회 소속)

약 2년간 사역(614)일을 마치고 케냐로 출국했다가 공동체 생활을 위해서 김주경 선교사님이 경험하신 이스라엘 기브츠 공동체를 추천해서 그곳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형제가 세파안과 모하메드

② 강범진 전도사(전 오렐 선교사, 현 부산온천교회 고등부 전도사)와 김성주 자매(경북대 생물학과 3년)가 선교연구논문 및 선교답사차 2월 4일에서 2월 21일(17일간)간 사둔에 들어와서 저희 집과 외국 목사님댁에 거하면서 여러 곳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선교비 전ತ್ರ를 원하는 분들의 참고로 자매가 주고 간 선교 여행비를 소개해 드립니다. 왕복비(행기(KLM) + 호텔비(암스테르담 1박) = 1,652,250원, 비자(한국의 경우 5만원), 기타 숙박비 및 선물비, 합계 2,100,000원 정도라고 메모를 주고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강전도사님은 1년 반 후에 목사안수 받고 다시 수단에 올 것이라고 합니다. 수단 선교를 위한 격려가 되었습니다. 또한 재학중에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매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본인이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선교여행을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수단 선교비전ತ್ರ를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③ 최희숙 집사님(본 교회 교우, 윤석우 이사님: 대우고려회, 두 딸)이 한인교회를 섬기시다 귀국하셨습니다. 주위의 여건을 생각하시며 말없이 은밀히 섬겨주신 충현 식구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VIP룸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출구를 빠져나가실 때는 어떤지 우리만 때놓고 가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P.O.Box 12973 Khartoum, Sudan
Rev. Kim Young Dae(김영대 선교사)